대한건설협회충북도회신임회장

**김 경 배** (주)한국종합건설 대표이사

# "지자체와 건설업계가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지금까지는단순히개인기업인의 입장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공조직의 수장으로 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기쁜 마음보다는 어깨가 무거움을 느낍니다. 어려움에 처한 건설업계를 위해 노력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협회의 위상제고와 회원사들의권익보호를위해총력을쏟겠습니다."

지난 4월 말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21대회장에당선된김경배한국종합건설대표는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와 업역 보호, 회원사간단합등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 또한, 그는앞으로" 불우이웃을 위한 사랑의 집 짓기 등다양한지역사회봉사활동도적극적으로펼쳐건설업의이미지를 개선하는데도중점을둘것"이라고말했다.

이번달 26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김경배 회장은 지역 건설업계가 일감 부족으로 사면초가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만큼 무엇보다 물량확보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이지역의건설경기가특히싸늘한데는 도세가 약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량이적은반면업체수는많아경쟁이치열해지고있기때문으로분석했다.

"협회가직접물량을창출할수는없습니다. 하지만충북도와 일선 시·군 단체장들에게 분할발주를 수시로 건의하고, 최저가 적용 대상 공사의 확대를 억제시키는 한편 옥석을 가려 부적격 업체들을 골라낸다면 지역 건설업계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행히최근정부가 4대강살리기사업이나재정의조기집행등건설경기활성화에많은신경을쓰고있어지자체와지역건설업계가힘을모은다면위기를극복하는좋은기회가될것으로생각합니다."

김경배 회장은 일감 부족과 함께 지금의 기술자 보유 기준이 지역 중소 업체의 경영에커다란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고토로했다. 현재의 건설업체 기술자 보유 기준은 4대 보험을 포함해 중소 업체가 부담하기엔 너무 과중하다는 것이다."1년 가야 공사를 한건딸까말까하는현실에서토목건축업의 경우 무조건 기술자를 12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입니다. 앞으로 다른 시·도 협회와 연계함은 물론 본회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방침입니다."

그는 1억원씩을 매년 협회발전 기금으로 출연하기로했다. 협회운영에도움을주되 회원사들이낸회비를내실있게필요한곳에만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다짐을 표현한 것이다. 그는출연금이 지역민들과 함께할 수있는프로그램을협회차원에서만들어 추진하는데쓰이기를희망한다고밝혔다.

김경배 회장은 첫인상이 강해 보인다. 그래서 무뚝뚝한 기업인으로 오해받기 쉽다. 하지만 그는 어려운 형편 때문에 해외여행은꿈조차꿔보지 못한노인들이해외문화를 탐방하고, 가정이어려운청소년들이학업을계속하도록 지원하는가슴따뜻한기업인이다. 기자가인터뷰를위해사무실을 찾던 날에도 충북 옥천, 영동군 지역 저소득층 노인들 80여 명이 부푼 가슴을 안고중국상하이행비행기에몸을실었다.

김경배 회장은 2003년 20억원의 기금을 쾌척해 한건복지재단을 설립하였고, 이후에도매년3억원이상씩출연해현재재단기금은 45억원으로 늘어났다. 총 50억원의기금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재단은 2004년과 2005년에는 가정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꿈과희망을심어주기위해' 대학생해외체험배낭여행'을지원했으며,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불우시설 지원 사업을 꾸준히 펼치고있다.

이런 공로로 지난해 그는 사회복지부문 청주시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그는 "지역 사회와 주민을 위해 가진 것을 환원하는 것은 기업인의 사명감"이라고 겸손해했다.

**이형우** · 기자 · hwlee@cerik.re.kr